전 아사히 신문 기자가 들려주는 일본과 일본인 이야기

지극히 사적인 일본

나리카와 아야 지음

아사히 신문 문화부 기자로 일했던 나리카와 아야는 10년째 한국에 살고 있다. 지난 2016년 한국의 촛불집회를 목격한 그는 1987년 6월 항쟁의 '성공 체험'이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이어지는 게 부러웠다. '냄새 나는 것에 뚜껑을 덮는다'는 관용구가 통용되며 나쁜 일이나 실패, 추문 등을 일단 감추는 데 급급한 일본의 현대사에서 그런 '성공 체험'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특징 중 하나인 '메뉴얼 사회'는 예측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변화가 느리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특정 집단에서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은연중에 다수의 의견에 맞출 것을 강요하는 '동조 압력'도 일본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다.

나리카와 아야가 펴낸 '지극히 사적인 일본'은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흥미로운 안내서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양국을 오가며 일본에 한국 문화를 소개해온 저자가 직접 자신의 나라를 소개한다는 점이다.

두 나라에서의 생활은 그의 사고의 폭을 확장시켰고 일본의 사고 방식과 문화에 대해 한국인들이 궁금해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 오해하고 있는 것 등을 가감 없이 풀어낸다. 책은 기자 출신이라는 장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취재 현장에서 겪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사례들이 각 에피소드에 적절하게 녹아 있어 현장감 있게 읽히며 근거 자료들을 충실히 제시해 신뢰감을 준다.

일본에서는 남녀가 결혼을 하면 반드시 동성(同姓)이어야 한다. 대부분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른다. ⓒGetty Images 〈틈새책방 제공〉

"일본의 오사카에서 태어나 여러 지방에서 살아보고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한국 독자를 위해 쓴 책"이라고 저서를 규정한 그는 흔히 우리가 '일본'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어 생각하는 일본이 실제로는 각 지역마다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를 가진 나라임을 주지시킨다. "도쿄에서 태어나 지방이나 외국에 살아본 적이 없는 일본인이 쓴다면 책이 다른 내용으로 채워졌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내가 생각하는 일본인', '천황의 나라', '한일이 진짜 친구가 되는 방법' 등 모두 9개 장으로 구성된 책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일본의 속살을 보여준다.

일본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천황의 존재감, 일본 정치의 대표적 모습인 세습 의원 제도의 배경, 결혼식은 교회에서·장례식은 절에서 하는 일본의 종교문화, 남편의 성을 따르는 일본 여성에 대한 이야기,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일본 경제 등 다채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저자는 특히 자이니치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문제, 독도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피하지 않고 발언하며 독자들에게도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그밖에 일본의 대표적 엄마표 음식인 카레, 오사카의 소울푸드 오코노미야키와 다코야키, 스시, 사케 등 일본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재미있게 읽힌다.

한편 외국인이 직접 자신의 나라를 소개하는 콘셉트인 '지구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 시리즈는 지금까지 '지극히 사적인 이탈리아'(알베르토 몬디·이윤주), '지극히 사적인 프랑스'(오헬리엉 루베르·윤여진),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벨랴코프 일리야), '지극히 사적인 네팔'(수잔 샤키야·홍성광)이 출간됐다.

〈틈새책방·2만2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서정에서 한 발짝 물러나 경험과 맞물린 상상의 세계

코드를 잡는 잠

이승예 지음

"이번 시집의 전체적인 주제는 억압의 분노,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유입니다. 억압된 감정에서 자유로워진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를 저만의 목소리로 형상화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순천 출신 이승예 시인이 최근 세 번째 시집 '코드를 잡는 잠'을 펴냈다.

시인은 그동안 사건이나 이미지를 시로 치환하는 방식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집에서는 '감정'에 충실해 그 결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를 상상과 연계한 작품을 선보인다. 그는 "기존의 이미지 중심의 서정에서 한 발짝 물러나 경험과 맞물린 상상의 세계를 그리고 싶었다"며 "강렬한 사유는 다소 거칠지 몰라도 울림만큼은 깊고 진실하다"고 밝혔다.

모두 4부로 이루어진 시집은 문단에 나온 이후 천착해왔던 언어의 벽, 극한에 이르는 상상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담고 있다. 억눌려 왔던 시적 화자를 과감히 풀어놓음으로써 상상과 연계된 감정의 결은 섬세한 파동으로 전이된다.

또한 정치하면서도 세밀한 언어의 활용, 무게감이 느껴지는 시행들과 실족의 자각이 투영된 이미지들은 예사롭지 않다. 화자의 내면을 짓누르고 있던 오랜 감정의 결이 한꺼풀 벗겨지고, 독자들은 신비하면서도 변화무쌍한 시적 세계와 맞닥뜨리게 된다.

"곰팡이 냄새가 흐린 불빛을 켜 둔/ 여인숙에서 하룻밤 묵어간다/ 기대어 본 적 없는 벽엔 누가 헤어지자고 했는지/ 처진 어깨들이 촘촘히 걸려 있다/ 벽지에선 목단이 피느라 한창인데/ 맞대는 벽과 투숙객의 등은 딱딱한 질감을 가졌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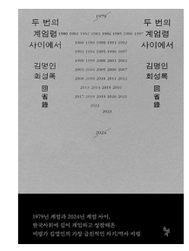
위 시 '어깨들이 저린 벽'은 시인의 시 세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다. '처진 어깨들'로 치환되는 어느 여인숙에는 무수히 많은 아웃사이더들의 흔적이 드리워져 있다. 화자는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의 쓸쓸하면서도 비루한 삶을 말없이 응시한다. 오늘의 시대가 잉태한 절망과 통증, 사람들 저마다의 내면에 드리워진 상처의 흔적을 그렇게 공감의 언어로 위무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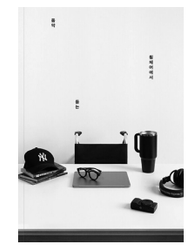
시인은 "시를 쓰는 그 자체가 너무도 행복하고 의미가 있다. 혼자 가는 길이지만 오롯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위로와 떨림으로 다가 온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시를 발견하고, 시를 쓰며, 시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시인은 2015년 '발견'으로 등단해 지금까지 시집 '나이스 데이', '언제 밥이나 한번 먹어요' 등을 펴냈다. 제5회 김광협문학상, 제20회 모던포엠 작품상을 수상했다. 〈여우난골·1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두 번의 계엄령 사이에서(김명인 지음)=1980년 '무림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문학평론가 김명인이 45년의 삶과 성찰을 담은 '회성록(回省錄)'. 2020년 재심 무죄, 2024년 또 한 번의 계엄을 마주한 저자가 개인의 생애와 한국 현대사를 겹쳐 기록한다. 운동가에서 시민으로, 고통과 환멸 속에서도 희망과 연대를 모색한 내면의 풍경이 깊은 울림을 준다. 〈돌베개·2만4000원〉

▲프란츠 카프카(뤼디거 자프란스키 지음, 편영수 옮김)=카프카 사망 100주기를 맞아 지난해 출간된 평전. 글쓰기가 곧 실존이었던 카프카의 삶과 문장을 따라간다. 소설과 일기, 편지와 메모 속에서 황홀함과 고통 사이를 오갔던 한 인간의 실존을 섬세하게 그린다. 작품 너머에 존재한, 오직 문학이 되어버린 사람 카프카를 만날 수 있다. 〈사람in·2만5000원〉

▲휠체어에서 듣는 음악(하태우 지음)=휠체어 위에서 글을 쓰고 사진을 찍는 저자가 음악을 매개로 풀어낸 삶의 단상과 내면의 풍경들. 대중가요와 함께한 일상 속 순간들, 보통이 되려는 존재의 고군분투, 때로는 웃음 섞인 자조와 따뜻한 시선이 교차한다. 10CM·언니네 이발관 등 익숙한 곡들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음악이 무엇보다 끝까지 남는 감각임을 담담히 전한다. 앨범 재킷을 재해석한 노상호의 드로잉도 함께 실렸다. 〈워크룸프레스·2만원〉

▲세상에서 가장 짧은 경제사(앤드루 리 지음, 고현석 옮김)=농업혁명부터 산업혁명, 팬데믹 이후까지 5000년 세계 경제사를 핵심만 골라 정리했다. 역사적 사건과 인물, 경제 이론을 씨줄과 날줄로 엮어 현재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안목을 길러준다. 수식 없이도 경제 개념을 쉽게 풀어내며, 투자·소비·저축 등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경제 교양을 전한다. 〈웅진지식하우스·1만9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마지막 꽃(제임스 서버 지음, 강무홍 옮김)=전쟁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 뒤에도 남은 단 하나의 꽃.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발표된 반전(反戰) 우화로, 간결한 선과 절제된 언어로 절망 속 희망을 이야기한다. 거친 선으로 그려진 그림은 단호한 힘으로 인간의 취약함과 절망, 그리고 희망을 전한다. 시대를 초월해 일본에선 무라카미 하루키, 프랑스에선 알베르 까뮈가 번역한 고전 명작이 돌아왔다. 〈주니어RHK·2만원〉

▲소년과 녹나무(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요시다 루미 그림, 유소명 옮김)=미래가 두려운 소년이 '녹나무의 여신'을 찾아 떠나는 여정. 슬픔과 두려움을 품은 채 사막을 건너는 소년 앞에 펼쳐지는 시간의 풍경들, 그리고 여신이 전하는 따뜻한 한마디가 깊은 울림을 준다.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는 아주 소중해." 히가시노 게이고가 어린이를 위해 처음 쓴 그림 동화. 〈㈜소미미디어·1만8500원〉

▲햇살 같은 너를 기다리며(빅터 D. O. 산토스 지음, 안나 마르그레테 셰르고르 그림, 윤영 옮김)=이사, 이주, 이민 등 낯선 환경에 놓인 모든 아이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주인공인 소년 페드로는 말이 통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강아지 '버디'를 통해 따뜻한 우정과 나눔의 가치를 배운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누군가의 햇살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섬세하고 따뜻한 그림책. 〈그린북·1만6800원〉